

# KOSPI, 6일 연속 상승

[ Market Analyst ] 최유준 수석연구원 ☎ (02) 3772-1964 ✉ junechoi1@shinhan.com



## 투심 회복, 상승세 확산되며 KOSPI 6일 연속 상승

KOSPI 6일 연속, KOSDAQ 5일 연속 상승 마감. 지난 주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됐지만 2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협상이 재개될 예정. 파월 Fed 의장은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6월 FOMC는 금리 동결로 굳어지는 분위기. 미국 증시는 하락했으나 아시아 증시는 약달러도 작용하며 대체로 상승 재료로 반영.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관망 작용하며 거래대금은 직전 거래일 대비 감소. 반면 기관 및 외국인 동반 순매수 유입. 외국인 6일 연속 순매수, 다수의 업종의 매수 유입되며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을 반영. 니케이225지수는 8일 연속 상승 마감. 반도체, 종합상사, 자동차, 의약품이 시세를 견인. 중화권 증시도 상승. 자동차, 2차전지, 소비재 등 업종으로 순환매 유입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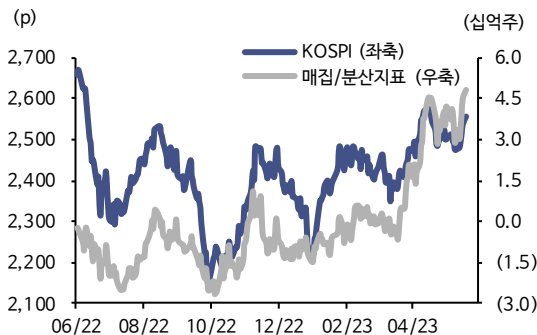
## 민감주로 상승세 확대되며 건설, 기계, 조선, 철강 등 상승

반도체는 오후 들어 상승폭 축소, 민감주로 상승세 확대되며 지수 견인. 건설, 기계, 조선, 철강 상승. 미디어/엔터는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소폭 하락. 1) 건설, 기계: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방안 논의 개시에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종합상사 등 관련주 강세. 2) 조선: 한국 조선사의 선가 상승과 수주 호조, 2차 카타르 LNG 프로젝트 기대감도 작용하며 강세. 3) 미디어/엔터: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재편과 다수의 업종으로 수급 분산된 영향, 외국인 수급 유입되며 낙폭 일부 축소

##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시 상승 온기 확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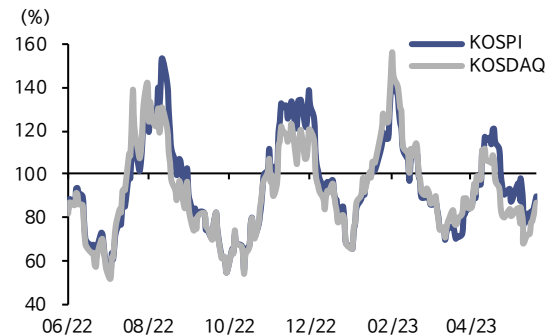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제외하면 가시적인 큰 악재는 부재. 통화정책 영향력 감소, 미국 지방은행 사태의 제한적 여파로 시장 변동성은 완화. KOSPI와 매집/분산지표 동반 상승하며 주가의 신뢰성을 제고. 등락비율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며 소외종목에도 온기 확산 가능성. 바이든 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을 언급. 부채한도 협상 이후 지정학적 긴장 완화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

KOSPI 매집/분산지표 추이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KOSPI 및 KOSDAQ 10일 누적 등락비율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유준).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